

민주, ‘李 개헌 장기집권 의도’ 국힘 공세에 “적반하장”

“네거티브 선거전” 강력 비판
“특정단어 하나에 문제 삼아”
배우자 토론회 제안엔 “황당”
李 “장난치듯 선거 이벤트화”

더불어민주당은 20일 대통령 4년 연임 개헌 제안을 두고 장기 집권 의도라며 비판하는 등 이재명 대선 후보를 향한 국민의힘 공세를 “적반하장”, “네거티브 선거전”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호중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총괄선대본부장은 이날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진행한 회의에서 “(이 후보가 제안한 개헌안의) 연임이라는 단어를 두고 국민의힘이 적반하장식 문제를 제기했다”며 “연임은 현직만 할 수 있는 것이고, 중임은 패자도 부활할 수 있다는 뜻이다. 푸틴과 트럼프도 중임제의 산물”이라고 말했다.

그는 “헌법 제128조에 따르면 개헌 시 재임 중인 대통령에게 연임이 허용되지 않는데 왜 시비를 거는지 모르겠다”며 “몰랐다면 한심한 것이고 알고도 장기 집권 운운했다면 계엄으로 영구 집권을 노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0일 경기 고양 일산문화광장에서 열린 집중유세에서 시민들을 향해 엄지를 들어 보이고 있다. 공동취재·연합뉴스

내란 세력의 제 발 저리기”라고 일갈했다.

박지원 의원(해남·완도·진도)도 이날 페이스북에 “이재명은 대통령병 환자라서 개헌을 반대한다”며 비난하다가 막상 이 후보가 제7공화국 문을 여는 개헌 공약을 하니 말도 안 되는 푸틴 중임제, 연임제로 시비를 건다”며 “당신들이 반개헌 세력”이라고 국민의힘을 직격했다.

지난 18일 이 후보는 4년 연임제를, 김문수 후보는 4년 중임제를 제안했는데, 연임과 중임 간 차이를 두고 양당은 신경전을 벌여왔다.

‘네거티브 선거전’에 대한 비판도 거세다.

민주당 강훈식 상황본부장은 “선거운동이 중반을 접어들며 예상대로 각종 네거티브가 난무하고 있다”며 “이 후보의 진의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0일 서울 고속터미널역 인근에서 집중유세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와 무관하게 내란 정당과 그 뿌리에서 파생된 정당들이 특정 단어 하나를 집요하게 문제 삼고, 티끌 만한 의혹을 만들어내려 혈안이 돼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 후보의 입만 바라보는 말꼬리 선거 운동은 대통령 후보의 태도도 아니고, 국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 극우 보수의 네거티브 선거 전략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라며 “이번 대선은 내란 극복

대선이다. 내란 정당 네거티브를 내란 극복 방해 행위로 규정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양당 대선후보 배우자의 TV 토론 생중계를 제안한 데 대해, “황당한 제안”이라며 일축했다.

조승래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배우자 토론을 하자는 건 황당하고 해괴한 제안”이라고 비판했고, 박경미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에서 김건희 여사가 적극 개입하지 않았다. 배우자가 정치할 건가”라고 되받았다.

노종면 대변인은 “국민의힘 배우자 TV 토론 제안에 든 생각, 김건희를 모시더니 배우자를 대통령으로 인식하는구나”라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적었다.

이재명 후보도 이날 경기도 유세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그러면 (미혼인) 이준석 후보는 어떻게 합니까. 그게 말이 되는 얘기냐”며 “즉흥적이고 무책임하고 대책이 없다. 신성한 주권 행사의 장을 그런 식으로 장난치듯이 이벤트화해서는 안 된다”고 직격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민주·국힘, 지귀연 판사 ‘술접대’ 의혹 두고 설전

민주 “법복 입고 재판정서 거짓말”
국힘 “저질정치쇼·결정적 증거 없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의 ‘술접대’ 의혹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민주당 윤호중 중앙선대위 총괄본부장은 이날 중앙당사 총괄본부장단 회의에서 “이런 판사에게 역사적 재판을 계속 맡겨도 되느냐”며 “판사가 어떻게 법복을 입고 지엄한 재판정에서 신상 발언을, 그것도 몇 시간 못가 드러날 거짓말을 할 수 있느냐”라고 강조했다.

그는 “(구속 기간 계산법을) 날짜에서 시간으로 바꾸고, 어떤 시간은 마음대로 빼먹어 (윤 전 대통령을) 구속 취소한 황당무계한 결정이 어떻게 나올 수 있었는지 이재야 알 것도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존경하는 법관 여러분, 권위는 주장하는 게 아니라 인정받는 것이고, 사법의 권위는 신뢰에서 나온다”며 “더 이상 사법부의 신뢰와 권위가 무너지기 전 사법부 스스로 권위를 세워달라”고 강조했다.

전날 지 부장판사는 민주당이 제기한 서울 강남 유흥주점 향음 의혹에 대해 “의혹 제기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그런 데 가서 접대받는 건 생각해 본 적 없다”고 부인

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거짓 해명이라며 지 부장판사가 의혹 대상 업소로 추정되는 장소에서 동석자들과 찍은 사진을 공개한바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저질 정치쇼”라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박성훈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지 부장판사에게 ‘몹살롱 술접대’ 의혹을 제기한 지 엿새가 지났지만 결정적 증거는 단 하나도 내놓지 못했다”며 “사진 몇장을 내밀고 해명은 ‘사법부가 알아서 하라’는 태도는 무책임 그 자체”라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지금의 ‘묻지마 폭로’는 전형적인 민주당의 ‘아니면 말고’식 저질 의혹 정치공작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국민도 익숙한 한동훈 전 대표의 ‘청담동 술자리’ 의혹, 오세훈 서울시장의 ‘생태탕 의혹’과 다르지 않은 패턴”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이 이런 자극적인 의혹을 꺼낸 이유는 명백하다”며 “대선 국면에서 재판부를 흔들어 정치적 이득을 챙기고 ‘몹살롱 판사’라는 선전적이고 자극적인 키워드로 국민의 관심을 돌려 사법부에 누명을 씌우고 재판에 개입하려는 악의적 시도”라고 주장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민주 “예상 득표율이나 낙승 등 언급시 징계”

‘대선 낙관론’ 경계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소속 의원들에게 예상 득표율 언급 금지 등을 지시하는 등 ‘대선 낙관론’ 경계에 나섰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 이날 의원들에게 긴급 지시사항을 공지했다.

박 위원장은 “연설, 인터뷰, 방송 등에서 ‘예상 득표율’ 언급을 금지한다”며 “선거 결과에 대해 ‘낙승’, ‘압승’ 등 발언을 금지한다. 실언하지 않도록 언행에 각별

히 유의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부터 ‘예상 득표율’, ‘낙승’ 언급시 징계를 포함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선부른 낙관은 투표를 하라”며 “오만함은 역결집으로 이어질 뿐”이라며 “끝까지 절박하고 겸손하게 호소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일부 의원들이 이 후보의 높은 득표율을 전망하는 주장이 나오자 이같은 조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서울=김선욱 기자

이준석 “해남 데이터센터 외국자본 투자는 환영”

광주 방문…“전력 공급망 지적인 것”
공향 국제선·자율주행 특구 등 공약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대통령 선거 후보자 TV 토론회에서 ‘전라남도 해남 솔라시도 AI 데이터센터 구축’에 대해 “망상에 가깝다”고 비판해 논란(본보 5월20일자 1면 보도)을 빚고 있는 것과 관련, “외국 자본의 투자 자체는 환영할 일”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20일 광주광역시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해남에 데이터센터가 들어서고 그게 외국 자본에 의해서 실제로 진행된다면 누구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면서 “전력 공급망의 안정화 등 기술적인 문제를 지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해상 풍력의 계통 안정성이”라고 하는 것이 데이터 학습센터를 지속하는 데 있어서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영광발전 단지, 여수 화력발전 단지 등과 연계가 중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숙지하고 있는 것인지 묻는 것이고 만약 실제 연계가 이뤄지면 해상풍력에 의해 돌아가는 데이



이준석(오른쪽)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20일 광주시청을 방문해 강기정 광주시장으로부터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 소설책을 선물 받고 있다. 광주시 제공

터센터라고 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이날 광주지역 공약도 제시했다.

이 후보는 “광주는 AI와 모빌리티 산업을 주력으로 삼고 있다고 하지만, 구호에만 그쳐선 안 된다”며 “도시 전체를 광역단위 자율주행 특구로 지정해 시민의 일상 속에서 실증하고 테스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광주공항 국제선 기능 복원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는 “무안

국제공항이 최근 사고로 안전성 보강에 시간이 필요한 상황에서 광주·전남 주민들이 국제선 이용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광주공항은 이미 국제선 운항을 위한 터미널과 출입국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 대통령이 된다면 즉시 복원 조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기술적 문제는 없고, 국토부 지시 등 행정적 판단만 남아 있기 때문에 빠른 조치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옛 전방·일신방직 터에 추진 중인 복합쇼핑몰(더 현대 광주) 조성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대표 시절부터 광주 복합쇼핑몰 조성을 주장해왔던 터라 현장에 방문해 추진 상황을 더욱 꼼꼼히 살폈다”며 “더 현대 광주가 광주의 랜드마크가 되기 위해서는 지역 문화 콘텐츠, 음식, 패션 등이 함께 결합돼야 한다”고 말했다..

1박 2일 일정으로 광주 지역을 유세 중인 이 후보는 앞서 이날 오전에는 광주시청을 찾아 강기정 광주시장과 면담을 진행했고, 광주 지역 언론인과의 간담회 후 전남대학교 학생회관 식당에서 학생들과 점심식사에 나섰다.

정성이 기자

민주, 보수 강세 ‘남구 봉선2동’서 경청간담회

양부남 “다양한 유권자와 소통”

더불어민주당이 광주 남구 봉선2동을 비롯한 지역 내 보수성향 강세 지역을 전략 지역으로 선정하고 표심 잡기에 본격 나섰다.

민주당 광주선거대책위는 20일 봉선2동 한 카페에서 ‘경청간담회’를 열고 주민 10여 명과의 현장 소통에 나섰다. 이 자리에는 양부남 광주선대위원장과 김민석, 신정훈, 정진욱 의원 등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참석했다.

봉선2동은 광주 내 대표적인 고소득·고학력 지역이자 부동산 정책에 민감한 ‘아파트 부촌’으로, 지난 20대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가 39.1%의 득표율을 기록할

정도로 국민의힘 지지세가 높게 나타났던 곳이다.

양부남 위원장은 “유권자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요구를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신뢰 회복의 시작”이라며 “지역 맞춤형 경청 프로젝트를 통해 다양한 유권자들과 꾸준히 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간담회 이후 선대위는 광주의 미혼모 시설인 인애원을 찾아 관계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사회적 약자 지원 방안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한편 국민의힘도 봉선2동을 전략 지역으로 분류하고 30% 득표율 유지를 목표로 중앙당 차원의 집중 지원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정성현 기자

민주당 전남도당·경남도당
화개장터 영호남 합동 유세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과 경남도당은 20일 오후 동서화합의 상징적인 장소인 화개장터에서 ‘영호남 화합 합동 유세’를 열고 분열과 혐오의 정치를 끝내고 국민 통합의 시대를 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우리는 하나, 진짜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된 이날 유세에는 전남·경남 양도당의 선대위 주요 인사들과 핵심 당원, 지역 주민 등 약 500여 명이 참석했다.

전남도당에서는 주철현 상임총괄선대위원장, 권향엽·김문수·조계원 의원, 김태균 전남도회의회장 등 총괄선대위원장이, 경남도당에서는 송순호경남도당위원장, 민홍철·이연주 의원,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두관 전 의원 등이 상임선대위원장 자격으로 함께했다.

오지현 기자